

‘안전한 여름나기’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완산구, 폭염 대비 도로 쿨서비스·그늘막·무더위쉼터 운영·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등 추진

“올 여름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 등을 단단히 대비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걱정을 불들어내고 생업에 종사하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와 쉼터 등 공공시설물과 위생·복지 분야를 총망라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폭염특보 발효 시 주요 도로 33개 노선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살수차 6대를 동원해 도심의 열기를 식히는 ‘도로 쿨서비스’를 추진하고, 신호를 기다리거나 주요 보행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나

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195곳에서 그늘막도 운영한다.

구는 또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완산구 권역의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곳과 공공시설 34곳, 야외시설 41곳을 포함한 총 242곳이다.

구는 폭염 기간 원활한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19개 동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냉방기와 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야외에서 더위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백로공원 등 총 18개 공원에서 분수대 및 수경시설을 가동한다.

분수는 낮 12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1일 8회(50분 가동, 10분 휴식) 운영되며, 구는 분수대를 운영하는 동안 주 1회 정기 청소 및 수시 점검을 통

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구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미 35개 어린이집과 38개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위생·청결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00곳에 대한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도 완료했다.

여기에 구는 오는 20일까지 김밥집과 화집, 냉면·소바 전문점 100곳에 대해서도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여름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끝으로 완산구 권역의 19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지 사각지

대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는 자생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또한 후원받은 물품을 폭염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동서학동 ‘이이스크림 냉장고’ △효자2동 ‘제빙기 설치’ △평화동 ‘얼음물 나누기 사업’ 등 동별로 특색있는 자체 사업도 추진된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우리 완산구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폭염 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 낮 동안 야외 활동 자제, 신체 징후 확인 등 개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아프리카영화제’ 전주 개막

서울·부산·전주 릴레이 개최… 15일까지 전주서 진행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문화교류의 장인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12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주한 튀니지 대사와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전주 개막식을 가졌다.

한·아프리카재단과 부산 영화의전당,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의교단에서 후원하는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는 지난날 2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국내 3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된다.

전주에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4일간 영화제가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평소 자주 볼 수 없었던 가나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수단, 케냐,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우수한 작품 15편이 상영된다.

영화제 개막작은 튀니지의 로트리 아슈르(Lotfi Achour)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붉은 아이들의 길’(Red Path)이다.

영화제의 상영 시간표는 전주영화제작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호수가 맑은 덕진공원’ 수질개선 속도

전주시, 체계적 수질 관리로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 박차



전주 여의동·나은요양병원 경로당서 보건복지상담 나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동장 송해인)이 12일 나은요양병원(병원장 안소희)과 장동 예코르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르신 보건복지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직접 살피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2년부터 여의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은요양병원이 협력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안소희 나은요양병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해인 여의동장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자연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덕진호수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덕진호수 특성에 맞춰 오염물질과 유기물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광촉매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덕진호수 수질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연화교 기준 서측 호수의 바닥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시행했으며, 부족한 수위 확보를 위해 관정조사를 거쳐 2개소를 뚫어 지하수 500톤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차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호수 내 미생물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저 슬러지를 분해할 수 있는 광촉매제를 주 1회 투입 및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는 호수의 탁도 개선과 조류 번식, 악취 저감에 집중하고 있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수질개선사업



전주시가 덕진호수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덕진공원 연꽃군락지.

의 초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덕진호수 내 부영양화 지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력의 결과로 덕진공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그리고 노랑부리저어새가 잇따라 관찰되는 등 생태건강 회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덕진공원 수질개선과 더불어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열린광장 조성 △참포원 조성 등 기반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 관계자는 “전주를 대표하는 덕진공원이 ‘호수가 맑은 공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 “생태적 건강 회복을 위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86억원 부과

전주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4166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가 약 3,000건 증가한 반면 부과액은 약 9,000만 원 감소한 것이다.

연납 공제를 축소로 연납 신청 차량은 줄었지만, 친환경차(전기·수소) 증가와 차량 노후에 따른 세액 감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CD/ATM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완산구청사·주민센터 시설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는 12일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내 19개 주민센터의 청사 운영 현황 및 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원실 등 구청사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시민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살폈다.

이어 완산구 관할 19개 주민센터의 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의 우선 순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구청과 주민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현장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예산 및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